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취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	---

97/ 2/ 03 일본 도요타자동차 조업 정지

일본 아이치현 하쿠다니시의 도요타자동차 계열인 아이신정기공장의 화재로 부품(프로포손닝 밸브)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전 공장에서 감산하며, 그 규모는 수만대에 이르러 고오베 지진 이후 최대의 긴급 사태. 동 그룹은 외주사 등에서의 부품 공급 등의 병열화를 꾀하려 함.

97/ 2/ 11 대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불

07시 50분경 대구시 동구 신천3동 국제 나이트클럽 지하 화장실 부근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내부로 옮겨 불어 지상10층 지하1층 건물의 지하 350평 중 250평이 소실하여 2억2천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진화.

카펫의 유독성가스와 좁은 출구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새벽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음.

97/ 2/ 13 체육관 화재로 4명 사망, 6명 부상

새벽 1시 50분경 광주시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4명이 숨지고, 6명 중경상(체조선수 4명과 소방관 2명).

이 학교 체조선수인 2명은 질식사, 소방관 1명은 붕괴된 건물 벽의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으며, 피해액은 3천4백만원 정도로서 1시간반만에 진화.

화재원인은 누전이나 화기취급 부주의로 보고 조사중.

97/ 2/ 14 호텔 사우나 보일러실에서 화재

10시 14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 팔레스호텔 3층 사우나 보일러실에서 불이나 탈의실로 번지면서 옷장과 벽면 등 내부 10여평을 태우고 10분만에 진화,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사우나 중의 손님 20여명과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화재원인은 전기합선으로 보고 조사 중. 추정 피해액은 1천1백여만원.

97/ 2/ 23 방콕의 36층 복합건물에서 화재

방콕 중심가의 완공을 앞둔 36층짜리 사무용 복합건물인 프레지던트 타워에서 불이나 사망 3

명, 부상자 70명이 발생.

불은 개관을 위한 마무리작업 중이던 4층에서 시작되었고, 6대의 헬기와 20여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나 강풍과 연기로 인해 6시간만에 진화하였으며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

97/ 2/ 25 아파트에서 방화로 1명 사망

01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석탑아파트 다동 310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40대 남자가 소사하고 아파트 내부를 태워 300만원의 피해 발생

97/ 2/ 28 카페에서 싸우다 석유난로 진도

23시 55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오늘카페'에서 불이나 주인과 손님 1명이 소사하고, 3명이 중화상으로 병원으로 후송.

불은 주인과 손님이 시비 끝에 싸움을 벌이다 석유난로를 쓰러뜨려 발생한 화재는 내부 20여평을 태우고 30분만에 진화.

97/ 3/ 03 MBC 북경지사 사무실 화재

MBC 북경지사 사무실에서 FAX 연결선이 합선되면서 주위의 서류 등에 옮겨 불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중국 북경시 공안국이 밝혔다.

97/ 03/ 06 백화점 자재창고에서 불

05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전풍백화점 자재창고에서 불이나 건물 120여평과 포장용 상자 등을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진화.

당시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97/ 03/ 08 아래층 불로 여관 투숙객 4명 질식

06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한성여관 2층 파바로티 레스토랑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여관 투숙객 4명이 질식사하여 후송.

50여명의 투숙객은 옥상으로 대피, 119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2층의 120평을 전소, 3천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반만에 진화.

97/ 03/ 11 섬유공장 원단 건조기에서 불

06시 20분경 경기도 안산시 공단동 반월공단내 원단 제조업체인 '다섬섬유'의 1층 공장 원단 건조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뒤 변압기가 폭발, 1천평 규모의 2층짜리 공장건물과 기계류, 원단 등 7

진반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만에 진화.
원인은 전기과열로 추정.

97/ 03/ 11 핵연료재처리공장의 화재·폭발

일본 이바라끼현 동해촌의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 발생 후 10시간만인 20시 40분경 폭발하여 5층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근로자는 37명이 방사능에 노출됐으나 그 양이 극소하여 건강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국영회사 동연이 밝혔다.

97/ 03/ 13 인도 폭발물 보관창고의 화재·폭발

17시 30분경, 인도 서부 폰시 사타라구 부근의 폭발물 보관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9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

조사결과 창고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셀라틴 막대기가 보관되어 있었고 폭발은 단순사고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 2명은 중태.

97/ 03/ 13 쌍용정유 위험물탱크 폭발·화재

14시 58분경 경남 울주군 온산읍 쌍용정유 제1공장의 옥외 위험물 탱크 옆에서 용접작업 중 탱크 내에서 나온 잔유 유증기에 불티가 튀어 휘발유탱크가 폭발·발화.

당시 탱크의 위험물은 빼낸 상태로 잔류 휘발유만 일부 남아 있었다. 증축공사 중의 외주업체 작업자 5명이 부상.

97/ 03/ 14 보험금 노리고 임대창고 불질러

보험금을 노리고 임대창고에 불을 지른 이 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수배 중.

이들은 03시경 고양시일산구 장항동 654의 8 정천가구 창고에 불을 질러 인접 의류보관창고 등 건물 900㎡와 원단, 의류 등 11억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이다.

이들은 창고를 임대해 LG화재에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가족쇼파 원단 3억원어치를 쌓아 놓은 뒤 범행.

97/ 03/ 14 이발소에서 불이나 3명 숨져

08시 20분경 대구시 서구 내당4동 4층 건물의 2층 '미모이용실'에서 불이나 손님 3명이 소사하고 이발사 등 2명이 중화상. 불은 종업원이 이동식 석유공로에 기름을 붓다 번진 불이 카페트에 인화하여 대피할 시간이 없어 큰 피해.

97/ 03/ 16 쌍용정유 정제탑에서 폭발·화재

11시 25분경 경남 울산시 온산읍 온산국가공단 내 쌍용정유에서 윤활유 정제탑의 배관이 과열, 폭발하면서 발화하여 인근 진공탑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반만에 진화.

사고는 윤활유 제조를 위한 수소 1단계 개질 공정으로 수소와 Base Oil의 혼합액이 200atm, 45℃에서 6인치의 낮은 배관이 과열하여 발생.

97/ 03/ 17 쉘트공장에서 불, 1억8천만원 피해

13시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무등쉘트 송공장에서 불이나 148평의 조립식 건물 내부와 가공시설, 숨 원자재를 태우고 1억8천만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만에 진화.

불이 난 시각에 종업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공장 밖으로 나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

97/ 03/ 17 금속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여 불

19시 26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교내 공업센터 5층 26호실에서 대학원 박도균 등 7명이 벤젠의 순도를 높이는 실험 중 불이나 실험실 내부 10평과 컴퓨터 등 2천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

불은 금속나트륨을 칼로 절단하던 중 나트륨과 물을 접촉시키자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긴 불씨가 벤젠에 옮겨 불어 화재가 발생.

97/ 03/ 24 제주유선방송국에 화재

오전 5시 40분경, 제주시 이도1동 1775-18 제주유선방송국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방송송출실 등 50여㎡를 태워 9천7백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했으나 송출은 중단.

불은 유선방송 사무실에서 불길기 치솟았으며 유선방송 사장실 철제 금고문과 책상서랍이 뜯어낸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방화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97/ 03/ 26 공구상가 화재로 8천만원 피해

오전 4시경 인천시 남구 송의동 432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금성PVC와 반도산업사 내부와 야적장의 둔 PVC 등을 태우고 50분만에 진화.

불이 건물 외부에서 치솟은 점을 중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누전 여부도 조사 중.